

불교건축: 역사와 공간 이야기

(Buddhist Architecture: History and Space Story)

1주차

건축의 이해 : 동서양 건축의 기원과 전개

도윤수 교수



목 차

I	학습안내	3
---	------------	---

II	강 의	5
----	-----------	---

- 1-1 건축의 기원
- 1-2 건축의 3요소와 공간
- 1-3 건축의 재료와 구조
- 1-4 건축의 공간: 외부지향적 공간과 내부지향적 공간
- 1-5 건축군의 형성: 채의 집합과 실의 집합

III	퀴 즈	26
-----	-----------	----

IV	참고문헌	28
----	------------	----

I. 학습안내

1

강의개요

한국불교의 건축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기원과 전래라는 역사적 관점과 각 사찰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성격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불교건축의 역사를 인도의 초기 불교건축, 동아시아에서 성립된 선종 사원건축,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확립된 산사건축이라는 세 가지 역사적 장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한국 불교건축을 진입 공간, 예불 공간, 승가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모습을 보도록 한다.

2

학습목표

1. 불교의 종교적 특성을 통해 불교건축의 기원적 특징을 알아본다.
2.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선종 사원의 특징을 살펴본다.
3. 조선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산사의 형성과정을 이해한다.
4. 불교건축의 다양한 공간구성을 이해한다.
5. 사찰의 여러 건축물에서 보이는 종교적 상징을 찾아본다.

3

1주차 학습목표

1. 건축의 기원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불교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 동서양 건축의 차이를 기원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건축의 특성을 알기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4

주차별 강의주제

1주차	건축의 이해 - 동서양 건축의 기원과 전개
2주차	불교건축의 기원
3주차	불교건축의 동아시아 전래
4주차	선종 건축의 발생과 확립
5주차	한국 불교건축의 전통 성립(1)
6주차	한국 불교건축의 전통 성립(2)
7주차	불교건축의 공간(1) - 진입 공간
8주차	불교건축의 공간(2) - 불전 공간
9주차	불교건축의 공간(3) - 불전 장엄
10주차	불교건축의 공간(4) - 수행 공간

II. 강의

1-1

건축의 기원

1주 차 강의는 건축의 이해입니다.

부제로 동서양 건축의 기원과 전개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 건축의 기반이 되는 동양 건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양 건축과 비교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건축의 기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불교 건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건축의 차이를 기원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 불교 건축의 특성을 알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시작

건축의 기원은 우리가 쉼터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쉼터는 ‘피난처’ 또는 ‘대피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피난처와 대피처로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공간은 바로 동굴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동굴은 사람들이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초로 거주하기 시작한 공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또한 그 안에서 삶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측면을 본다고 하면 동굴은 인류가 선택한 최초의 건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은 구석기 시대에 인류가 동굴 안에서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유적입니다.

건축의 발전

그렇다고 하면 ‘최초의 건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쉼터가 어떻게 해서 발전을 또는 어느 방향으로 발전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줄로 요약하자면 쉼터에서 권위 건축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초적인 생존을 위한 건축 즉, 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건축에서는 생존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러한 조건들 즉, 생존 요건과는 무관한 종교적인 이유 또는 권력의 과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하지만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데요.

이러한 건축물들을 우리는 권위 건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위 건축에는 엄청난 재화가 투입되고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이 적용되었고 건축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대 건축에서도 가장 고도화된 건축 기술이 적용되는 곳은 초고층 빌딩 그리고 대형 스타디움과 같은 건물들인데요.

이러한 건물들은 현대 사회의 권위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료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사진은 김해 봉황대 유적의 고상 가옥과 그리고 화성 발안지구 유적지에 있는 움집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 고상 가옥이라고 하는 건물은 바닥에서 조금 높이가 높이가 띄워져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이거는 가야의 건축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화성 발안지구 유적지의 움집 건물은 땅을 살짝 파고 그 위에 간단한 구조의 건물을 올린 것입니다.

이 두 건물을 보시면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가장 간단한 기술로 원초적으로 지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동굴을 벗어난 인류가 처음으로 짓기 시작하는 건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음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서울 경복궁 근정전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서울에 있는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궐은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세워졌고 가장 마지막에 또 중수한 건축물입니다.

국가의 상징인 왕이 거주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국가 자체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선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여겼던 거죠.

그러한 경복궁 안에서도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근정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가장 중요한 ‘정전’이라고 불리던 건축물입니다.

보시기에는 건물 지붕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2층 건물이지만 실제 내부는 한 층으로 트여 있습니다.

저러한 건물들은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면이 많습니다.

내부에 난방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높기 때문에 굉장히 열효율이 떨어지겠죠.

저러한 건물은 사람이 실제 사는 환경에서는 최악일지는 모르지만 이 경복궁 안에서는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게 만들어놓은 건축물입니다.

왜 저렇게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데도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하게 건물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거는 바로 권위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보여 주는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적인 생활과는 관계없이 국가의 위상 또는 왕의 권위 등을 보여 주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러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앞에서 보셨던 고상 가옥이나 움집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경복궁의 근정전 모두 다 같은 건축물이지만 앞엿것들은 삶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었고 뒤에 있는 건축물은 권위 건축이라고 불리는 권위 보여 주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추상적인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측면을 노력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의 발달을 쉼터에서 권위 건축으로 발달했다고 하는 이유는 저렇게 크고 높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많은 노력들이 실제로 건축 기술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고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2

건축의 3요소와 공간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도윤수입니다.

지금부터는 2차시 주제로 건축의 3요소와 공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건축이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건축의 3요소

그러한 건축물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건축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루비우스가 정의한 건축의 3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건축가고요.

B.C. 1세기경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건축술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구요.

이 책이 국내에 번역될 때는 ‘건축십서’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 건축의 세 가지 요소로 기능, 구조, 미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건축의 필수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안에서 쓸모가 있어야 된다.

즉, 사람이 쓸 수 있는 무엇인가의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사람들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설명이고요.

구조는 튼튼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출발이 쉼터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쉼터라고 하는 거는 피난처이자 대피소입니다.

피난처이자 대피소의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려면 당연히 구조적으로 튼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은 요소는 미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미라고 하는 요소는 시대에 따라서 또는 문화권에 따라서 여러 뉘앙스로 이해되기 때문에 정확히 비트루비우스가 설명한 미가 현재 우리말로 했을 때 ‘미’ 또는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주변 건물들과 조화로워야 되고 그 건물 자체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 정도는 여러 문화권에

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 건축에는 저러한 요소들이 하나라도 빠지는 게 아니라 저 중의 1개 또는 2개를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충족되었을 때 건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한쪽에는 해머링이라고 부르는 조각이 있고 그 뒤에는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저 해머링맨이라고 부르는 조각은 높이가 22m 정도여서 웬만한 건축물의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조각입니다.

저 조각을 제작할 때에는 건축에 적용되는 여러 기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저거는 조각이라고 부르고 건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대규모의 조각과 건축은 그럼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비트루비우스가 정의했던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면 저 해머링맨이라고 하는 조각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건축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진을 하나 더 보시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조각입니다.

이 조각은 미국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제작했고요.

에펠탑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 자유의 여신상도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미국까지 배로 실어날라서 다시 조립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경우에는 머리 꼭대기 부분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망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의 여신상은 전망대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나.

즉, 단순히 전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상징물로서 존재하는 것이냐.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거치게 된다고 하면 기능이 원래 전망대로서의 기능이 주목적인 조각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물로서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저 자유의 여신상 역시 조각으로 보고 건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의 공간

이렇게 구조, 기능, 미라고 하는 게 골고루 균형을 이뤘을 때 우리는 건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에는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졌느냐면 바로 현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축 요소인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고 뛰어난 건축가가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건축의 요소로 꼽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서양 건축에서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늦게 나타납니다.

거의 근대 건축 시기에 들어와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확립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대조적으로 동양에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구조, 기능, 미와 같은 3대 요소라고 하는 규정은 동양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 동양권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지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노자의 도덕경 제11장의 내용이 간단하게 보였을 텐데요.

여기에 있는 전체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하고 고전 문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좀 중요한 부분인 두 번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릇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종이컵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종이컵은 형태가 둥그렇고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물이나 커피나 다른 음료를 담는다고 했을 때 애의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요?

종이라고 하는 재질일까요?

아니면 둥그렇다고 하는 형태일까요?

아니면 이 높이가 본질일까요?

아마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재료와 형태들은 다 이 종이컵의 본질이 아닐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컵의 본질이 아니겠죠.

이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개념, 그게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릇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지금 노자 같은 경우에는 다 ‘무’라고 하는 한자로서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릇이든 집이든 무언가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른 것을 채워 넣을 수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노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무엇인가가 비어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동양 건축에서는 공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개념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서양 건축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늦게 나타나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동양과 서양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기반 그리고 그 지리 속에서의 환경,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낸 건축물,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동양과 서양이 가지고 있는 건축이 어떻게 해서 다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그전에 간단하게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이나 서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영어권에서도 ‘이스턴’ 또는 ‘웨스턴’이라고 해서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관념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동쪽과 서쪽이라고 하는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 방향의 지시는 누가 만들어냈느냐면 아라비아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유럽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동양 또는 서양 이런 부분들이 다 영역이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현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관념은 그러한 지리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바로 동양은 한자라고 하는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문화권 또는 그 문화권의 후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지가 동양 문화권의 한자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서양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서쪽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요소로 정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라틴어 문화권이라고 하는 속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라틴어 즉, 알파벳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단어 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속성을 본다고 하면 단순히 지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한자와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불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문화권에 속한 건축일까요?

바로 불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는 또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 건축이라고 하는 강의 주제를 놓고 건축의 기원부터 해서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가 진행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불교 건축이라고 불리는 건축물들은 서양 문화권에서 기원을 두지 않고 동양 문화권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서양 문화를 기반으로 한 건축

물들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녹화하고 있는 스튜디오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강의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장소에서 이 강의를 보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집 또는 사무실 또는 기타 여러 공간들이 서양 문화권을 기반으로 된 건축물 안에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서양 건축과는 기본적인 기반이 다른 동양 문화권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점을 계속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다음에 이어질 부분은 동양과 서양 건축이 어떠한 기원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구조, 공간, 건축 형태가 차이점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건축의 재료와 구조

안녕하세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축의 기원에 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동양과 서양 건축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재료와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의 재료

동서양 건축의 기원적 차이는 우선 지리적인 조건에 따른 재료의 선택이 달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이 어디냐고 하면 황하문명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하문명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현재는 제시되고는 있지만 그 문명 안에 속하는 여러 문화권들에서부터 한자 문화권이 크게 퍼져 나갔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하문명 속에 여러 문화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리적인 조건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강과 산 그리고 강 주변의 넓은 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건축의 재료는 나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반면에 라틴어 문화권의 출발은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와 로마, 이 3개의 나라들이 에워싸고 있는 공간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여러분이 지중해라고 하는 장소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어떠한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머릿속에서 떠오른 이미지가 어떠시죠?

많은 분들이 아마 광고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높은 암벽, 그 암벽 밑에 펼쳐져 있는 푸른 바다를 생각하실 겁니다.

암벽과 바위라고 하는 장소들 그리고 거기 한가운데 있는 바다들 여기에서 여러분은 나무라고 하는 건축 재료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나무라고 하는 건축 재료는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지리적인 조건하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만큼 크고 튼튼한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문화권에서는 주요 재료로 선택하게 된 것은 석재라고 하는 재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자 문화권은 황하문명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목재가 가장 주된 건축 재료로 선택됐고요.

서양 문화권 즉, 라틴어 문화권에서는 주변이 바다와 암벽 그리고 암벽을 이루고 있는 바위라고 하는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재라고 하는 건축 재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양쪽이 출발한 지리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한 건축 재료도 다르게 되었습니다.

건축의 구조

지리적 조건 때문에 선택된 재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건축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건가?’라고 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건축물의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무로 만드는 집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를 서로 묶어서 버텨주는 ‘보’라고 하는 구조체가 맞물리는 가구식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는 ‘기둥-보 구조’라고도 하죠.

이 기둥-보 구조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무젓가락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나무젓가락으로 만들어진 집의 기본 형태는 어떻죠?

어떤 분은 삼각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각형일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뼈대만 있고 벽체가 없어서 뽕 뚫려 있는 구조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서양 문화권이 선택한 재료, 석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 과정을 생각해 보죠.

석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석재는 돌뿐만 아니라 벽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과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과정은 앞에서 나무로 기둥을 세우는 과정과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돌을 가늘고 길게 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무너지지 않게 돌을 쌓기 위해서는 넓적한 벽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집의 형태 또는 건축물의 구조물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벽식 구조’ 또는 ‘내력벽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어떤 상상을 하시느냐면 레고 블록이나 찰흙 덩어리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 보시죠.

레고 블록이나 찰흙 덩어리를 가지고 기둥을 만드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덩어리들을 차곡차곡 쌓거나 아니면 단단하게 두들겨서 벽을 세우거나 하는 방식으로 건축 구조물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 구조물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물론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문이나 창이 없어서 실제 사람이 드나들거나 아니면 햇볕이나 공기가 통할 수 없는 구조물이 완성됐다는 점은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일 겁니다.

가구식 구조 즉, 나무에 의해서 선택된 구조인 가구식 구조는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 전부 다 뽕 뿜어 있는 공간이고요.

돌이라고 하는 재료를 선택해서 가지고 온 벽식 구조는 만들어지는 순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구조물이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중국의 궁궐인 자금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태화전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건물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둥과 보만 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을 올려놓은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지요.

저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안하고 바깥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지?’

안하고 바깥하고 구분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 단계란 바로 기둥 사이를 벽으로 막거나 아니면 문을 설치하거나 창을 달아서 안팎을 구분하고 실제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거와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로마의 판테온 신전입니다.

우리가 ‘만신전’이라고도 부르는 건물인데요.

저 판테온 신전을 보시면 벽체는 창이나 문이 주 출입구 하나 빼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창이 뿜어 있느냐면 지붕 꼭대기에 딱 하나 구멍이 뿜어 있을 뿐입니다.

내부에는 창처럼 보이는 조각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창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힘을 받고 있는 내력벽에 구멍을 뚫는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구조적인 발달과 그리고 그것에 못지않은 수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식 구조에서는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구멍을 뚫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었습니다.

양쪽의 건축물을 비교해서 보면 한쪽은 뼈대를 만든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막을 건가를 생각하고요.

한쪽은 뼈대를 만들어나가면서 구멍을 어떻게 뚫을 건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양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민의 차이점은 결국에는 건축물 내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무엇,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간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죠.

물론 서양 건축이라고 해서 최초부터 다 돌로 지어진 건 아닙니다.

서양 건축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집트 건축을 보시면 석조 건축으로 출발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예시 사진으로 보시는 이집트 룩소스 신전의 기둥을 자세히 보면 기둥에 세로 줄 무늬가 짙게 나 있고요.

끝부분에는 꽃봉오리와 같은 그런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돌기둥의 이러한 조각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어디선가의 기원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양식은 어디서부터 기원한 것일까요?

바로 이집트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저렇게 돌로 거대한 신전을 세우기 이전의 건축물로는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일종의 갈대와 같은 식물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다발을 만들고 그 다발 머리 위에 다시 보와 같은 부재를 올림으로써 건축물을 만들어나갔던 거죠.

그것이 후대에 석재라고 하는 다른 재료를 채용하면서 그대로 장식 문양으로 반영된 것을 우리는 ‘양식’, 영어로는 ‘오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파피루스로 짓는 건축물에서 석재로 짓는 건축물로 발전하였는가.

앞에서 셸터에서 권위 건축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권위 건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거대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튼튼해야 되고 오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파피루스 다발이라고 하는 연약한 재료로는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라고 하는 오래가는 재료를 선택하게 되었을 것이죠.

이러한 돌을 재료로 선택하면서도 그 이전에 짓던 건축의 형태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완전히 돌에 적합한 벽식 구조라고 하는 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둥과 보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은 이집트 건축뿐만 아니라 그리스 건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이는 건물은 그리스 건축의 정수라고도 평가받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돌로 만들어졌는데도 기둥을 굉장히 여러 개 세워서 건물의 뼈대를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석재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벽식 구조로 넘어가기 이전 세대의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목조 건축의 흔적 또는 기억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 건축 하면 많이 떠올리시는 양식, 오더라고 하는 부분, 도릭 양식, 이오닉 양식, 코린트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타나느냐면 기둥 머리에 있는 식물 장식들이 어떻게 다른가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건축도 이집트 건축과 마찬가지로 식물들 즉,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짓던 방식이 그대로 석조 건축의 양식으로 남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석재로 목조 건축을 모방하기는 하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석재에 가장 최적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벽식 구조로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동양 문화권 그리고 서양 문화권이 각각 출발한 장소 즉, 지리적인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선택된 건축 재료가 나무와 석재라고 하는 서로 상이한 재료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이한 건축 재료는 결국에는 가구식 구조와 벽식 구조라고 하는 정반대의 성

격을 가지고 있는 구조 공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구조 방식은 나중에 건축 공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건축 공간이 양쪽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건축의 공간: 외부 지향적 공간과 내부 지향적 공간

안녕하세요?

앞에서 동서 문화권이 출발한 지리적 차이, 그 지리적 차이가 가지고 온 재료의 차이, 재료의 차이가 가지고 온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조의 차이가 공간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의 성격

목재라고 하는 재료, 석재라고 하는 재료, 각각의 재료에 의해서 나타난 가구식 구조와 벽식 구조는 공간의 질에도 큰 차이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앞에서 자금성의 사진을 보셨듯이 나무로 집을 짓게 되면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무엇을 고민하게 되느냐면 벽을 어떻게 막을 건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 고민하느냐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문 하나 다는 것, 벽 하나 치는 것, 창 하나 새로 뚫는 것, 전부 다 돈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바로 자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막을 필요 없는 곳은 막지를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영주 부석사의 안양루와 뒤쪽에 있는 무량수전의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앞에 있는 안양루라고 부르는 건물을 보시면요.

위아래 전부 다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뚫어 놓은 것이죠.

저거는 뚫려 있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뚫려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반면에 돌로 짓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벽식이라고 했죠.

벽식이라고 하는 거는 벽체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이고요.

벽만 만들어진 건축물은 그다음 단계로 고민할 게 문과 창을 어떻게 뚫을 건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가구식 구조로 만들어진 건물에서는 벽과 문을 달아서 막는 데 커다란 자본이 들어가는 반면에 벽식 구조로 만들어진 건축물에서는 문과 창을 새로 뚫는 데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조금 상황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벽에 문이나 창을 뚫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과 창이 개수가 적은 건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으로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알 몬테 성당의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저 알 몬테 성당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는 창이 여러 개 뚫려 있고 네모난 위쪽에도 창문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위쪽에 있는 창문들은 실제 창이 아니라 타일로 문양만 그려 넣은 것입니다.

벽식 구조는 그 벽에 어떤 구멍을 어떻게 뚫느냐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출입구나 창문은 뚫지 않는 거죠.

나무로 만든 가구식 건축물과 석재로 만든 벽식 건축물이 정반대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막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로 놔두는 거고요.

한쪽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창이나 문을 뚫지 않고 막힌 상태로 놔두는 건축물입니다.

결국에는 막지 않았으니까 외부와 뚫려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한쪽은 뚫지 않았으니까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1차시 때 이야기했던 건축의 기원 그리고 2차시 때 이야기했던 공간의 성격이라고 하는 두 부분을 잠시 되새겨 보면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건축의 3요소라고 해서 기능, 구조, 미가 강조될 만큼 어떻게 거짓말을 지을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측면의 발달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에 공간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았죠.

대조적으로 동양 문화권에서는 공간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한 모습을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한쪽은 공간에 대한 고민이 일찍부터 나타나고 한쪽은 공간에 대한 개념이 안 나타났는지 어렵פות이 느껴지시나요?

나무로 만든 집은 공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과 밖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건물 자체가 굳이 필요 없어서 막지 않았을 뿐인데 ‘내가 도대체 뭘 만들어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게 도대체 뭐야?’라고 하는 회의까지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내부와 외부가 교차하는 또는 내부와 외부가 서로 관통하는 각각의 공간에 대한 성격, 거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서양 문화권에서는 공간의 개념이 생길 수가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무엇이나, 바로 처음 만들어지는 공간 자체가 벽이라고 하는 단단한 장치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공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정의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느끼고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건축가조차도 공간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결국에는 건물 안과 건물 밖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만큼 건물 자체가 외부와는 독립되어 있는 또는 폐쇄적인 그러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공간, 폐쇄적인 공간, 이 2개의 공간은 각각 건물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에서도 차이를 보여 주게 됩니다.

개방적인 공간은 외부 지향적인 그러한 성격을 보여 주고요.

폐쇄적인 공간은 내부 지향적인 공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시 사진으로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겸암정사라고 하는 건물과 그리고 프랑스 툴루즈 지방에 있는 생 세르낭 성당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겸암정사의 사진을 먼저 볼까요?

겸암정사의 사진을 보시면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순간 보이는 게 분명히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집 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깥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나지막한 동산이 바로 하회마을입니다.

하회마을 건너편에 세워놓은 공부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작은 서재 건물이 겸암정사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건물에 들어왔는데도 보이는 건 건물 내부가 아니라 건물 외부 풍경입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기가 내부인지, 여기가 외부인지 아리송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건물 내부에서도 외부 공간을 지향하는 그러한 건축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프랑스의 성당의 사진을 보게 되면 저 생 세르낭 성당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출입구를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내부 공간이 하나의 소실점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확 퍼지는 무한대의 그러한 공간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점으로 집중되고 모이는 그러한 공간을 보여 주는 거죠.

모든 시선은 다 내부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외부와는 단절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황의 건축 공간은 미술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동양화에서는 ‘투시도’라고 하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모두 ‘투시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요.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 속에서는 소실점과 같은 개념들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고 그들이 생활하는 건축물 자체가 소실점을 보여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다 외부로 뻗어 나가는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공간들이었기 때문에

내부의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 나가는 소실점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투시도’라고 하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죠.

반면에 서양 문화권에서는 저렇게 모든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 순간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이면서 보여 주는 시점은 내부 중심적인 시점을 보여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투시도’라고 하는 기법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선들을 조금씩 쪽쪽 이어나가면 의도하지 않아도 투시도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즉, 저들은 누리고 있는 건축물, 살고 있는 건축물 안의 공간이 기본적으로 내부 지향을 하기 때문에 투시도적인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외부 지향적인 공간, 하나는 내부 지향적인 공간, 굉장히 둘 사이에는 공간의 질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공간의 질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건축군 또는 대규모 건축물, 더 나아가서는 도시의 성격도 서로 다르게 정의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대규모의 건축군으로 발전했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건축군의 형성: 채의 집합과 실의 집합

안녕하세요?

1주 차의 마지막 이야기인 건축군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군의 형성은 앞에서 살펴본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의 차이가 그대로 건축군 또는 도시적으로 확장되어 나갔을 때 모습의 차이를 여기서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간 구성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목재라고 하는 재료, 목재라고 하는 재료에 의한 가구식 구조, 가구식 구조에 의한 공간의 개방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개방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개별 건축물들이 좀 더 큰 규모로 확장돼 나가는 과정에서 건축물 자체의 규모를 키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집의 기본적인 재료가 나무이기 때문에 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큰 규모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나무 기둥이 비에 맞지 않도록 다 가릴 만한 엄청나게 큰 지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를 다 못 받아들였을 때는 결국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느냐.

건물을 나눠서 짓게 되는 거죠.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한 공간 또는 잠을 자기 위한 공간 또는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공간 또는 누구와 만나서 무언가 행동을 하기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건물 안에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필요한 규모에 따라서 각각 개별 건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동양 문화권에서 선택한 건축군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하나의 건축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축물들이 복합해서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나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찰 또는 궁궐, 향교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뜯어 보면 1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서너 개, 많게는 수백 개의 건축물이 모여서 하나의 장소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서양 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서양 건축은 석재라고 하는 재료, 석재라고 하는 재료 때문에 선택된 벽식 구조, 벽식 구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폐쇄적인 공간.

이 안에서 여러 용도의 다른 공간들이 요구된다고 하면 개별 건축물로 짓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식 구조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벽체 자체가 구조체이고 굉장히 많

은 자본이 들어가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 구조체 자체를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확장해나가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축이라고 하는 방식인 거죠.

이러한 증축이라고 하는 방식은 건물 채가 나뉘는 게 아니라 건물 안의 여러 실이 나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처음 지을 때부터 여러 동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실을 두는 방식으로 짓기도 하는 거죠.

자료 화면으로 영주 부석사와 그리고 알 몬테 성당의 모습을 보면 영주 부석사는 수많은 건물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장소이고요.

알 몬테 성당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길쭉한 건물 주변으로 해서 날개와 같은 것들이 붙어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날개처럼 붙어 나간 것들은 전부 다 후대에 좀 더 많은 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증축을 행한 흔적인 거죠.

한쪽은 채가 분화되고 한쪽은 실이 분화되는 건축 문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재미있게도 동양 건축에서는 여러 건물들에 이름을 붙이는 ‘편액’이라고 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편액을 붙이지 않으면 이 건물이 무엇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까지도 전부 다 여기가 어떤 장소라고 이름을 써서 걸어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문화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는 건물 단위로 이름을 붙이지 건물 안에 있는 각 방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다.

이거와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방들이 꾸며져 있고 각 방마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건물에 이름을 붙이는 문화가 아니라 각 방에 이름을 붙이는 문화인 거죠.

왜 방마다 이름을 붙이느냐.

건축물로 나뉘느냐, 아니면 실로 나뉘느냐고 하는 문화적 차이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바로 지리적인 요건, 지리적인 요건 속의 재료, 재료에 의한 공간의 성격,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채가 분화되느냐, 실이 분화되느냐고 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단순히 한 채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 채로 지어지는 건축군이라고 하는 동양 건축은 여기에 부가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필요하게 되느냐면 마당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공터, 그 공터를 무엇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정의되는 것이죠.

반면에 서양 건축에서는 그러한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등장한다고 하면 건물 내부에 있는 홀 정도가 등장하겠죠.

여기는 오히려 건축물 한 동이 굉장히 크고 그 안에 실로 나뉘었기 때문에 외부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을 마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거죠.

그 공간들은 크게 정원을 꾸미거나 아니면 도시의 광장 문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료 사진을 하나 보시면 우선 '동궐도'라고 하는 조선 시대의 궁궐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궐도의 그림을 보시면 한쪽에는 창덕궁이 있고요.

한쪽에는 창경궁이 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한꺼번에 합쳐서 '동궐'이라고 불렀고요.

그 2개를 한꺼번에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동궐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을 좀 찬찬히 여러분 보세요.

건물 개수만큼 무엇이 또 있을까요?

건물 개수만큼 다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마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당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방으로 탁 트여 있어서 무한대로 뻗어 나가면 마당이 아니겠죠.

그냥 허허벌판이 되겠죠.

그 건물에 종속된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담장과 출입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 환경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건축물은 하나의 마당 그리고 그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라고 하는 요소가 기본 단위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축 문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이러한 건축 공간들은 어떤가요?

마당이나 담장으로 개별 단위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뭐로 정의되죠?

101호, 102호, 13호, 1003호 등등의 실 이름으로 규정되고 있죠.

실 이름으로 규정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의 건축물 안에 나뉘어 있는 여러 유닛으로 건축물들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건축물의 정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죠?

동양 문화권에서 출발한 건축물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서양 문화권에서 출발한 건축물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이 건축의 이해라고 하는 것을 불교 건축에 앞서서 설명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9주 동안 보게 될 건축물들은 베르사유 궁전과 같이 큰 건축물 안에 실이 나뉘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동궐도에서 보이는 창덕궁이나 창경궁과 같이 개별 건축물들이 나뉘어 있고 개별 건축물들이 각각의 마당을 가지고 있는 저러한 건축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서구식 건축 공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러한 건축 공간에 대해서 실제 체

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9주 동안의 수업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한 가지의 가정을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셔야 될 겁니다.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간 즉, 불교 건축이라고 하는 대상은 동궐도에서 보이는 건축 공간이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축 공간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동양 건축의 전통성 속에서 나타나는 불교 건축의 특별한 점들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이번 주 차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II. 퀴즈

1. OX퀴즈

문제: 건축은 인류가 자연환경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자연동굴과 같은 피난처에서부터 시작한다.

정답: ○

설명: 건축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장소에서 기원하여 피난처, 대피소(Shelter) 등에서 출발한다. 가장 손쉽게 선택된 피난처는 자연 동굴이다.

2. OX퀴즈

문제: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건축술에 대하여』라는 저술에서 건축의 3요소로 '기능', '구조', '경제성'을 제시하였다.

정답: ×

설명: 기능, 구조, 미를 건축의 3요소로 제시한다.

3. OX퀴즈

문제: 동양과 서양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영역을 특정하고 있다.

정답: ×

설명: 동양과 서양은 지리적 인식에 기반한 상대적 관념이다.

4. OX퀴즈

문제: 동양문화권(한자문화권)에서 발달한 건축구조 방식은 나무라는 재료의 특성에 기인한 가구식 구조법이다.

정답: ○

설명: 가늘고 긴 목재의 형태적 특성과 인장강도와 휨강도가 뛰어난 특성으로 기둥과 보로 건물의 틀을 구성하는 가구식 구조가 발달한다.

5. OX퀴즈

문제: 동양문화권(한자문화권)에는 목조건축의 특성에 따라 채의 분화가 발달하고 이에 따라 마당과 담장이라는 외부공간과 함께 하나의 영역을 구획하는 '원(園, 院)' 건축문화가 발달한다.

정답: ○

설명: 동양문화권에서는 개별 건축물별로 담장과 마당, 출입문 등이 하나의 원을 구성하고, 서양문화권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개의 실을 가지는 방식으로 건축문화가 발달한다.

IV. 참고문헌

-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1978
- Amos Ih Tiao Chang 저; 윤장섭 역, 『建築空間과 老子思想』, 기문당, 1984
- Vitruvius 저; M.H.Morgan 편역; 오덕성 역, 『건축십서』, 기문당, 1985
-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1993.
- Winand Klassen 저; 沈愚甲, 趙希哲 공역, 『서양건축사』, 대우출판사, 1998
- 도윤수, 「불교건축」, 『테마 한국불교 8』, 동국대학교 출판부, 2020.